

태고종 보우승가회

회원 모두 “공부해요”

보우승가대학 입학... “후배들에게 모범 보일터”

태고종 보우승가회(회장 지홍) 스님 45명 전원이 서울 창신동 원각사에 소재하는 보우승가대학에 입학하기로 화제다.

보우승가회는 12월 14일 대전 유성 아드리아호텔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후배 스님들에게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위해 학력에 관계없이 새로 입학하기로 결의했다.

보우승가회는 이에 따라 보우승가대학을 2006년 1학기부터 1년제에서 2년제로 변경하고, 불교학과 승가학과 법학과 전통예술과 등 4개과를 개설하기로 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임기2년의 제3대 회장에 지홍 스님(서울 안정사)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지홍 스님은 취임사에서 “보우승가회 위상을 높이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종도들 중 관심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02)459-5928 김원우 기자

“토지매매·개발 안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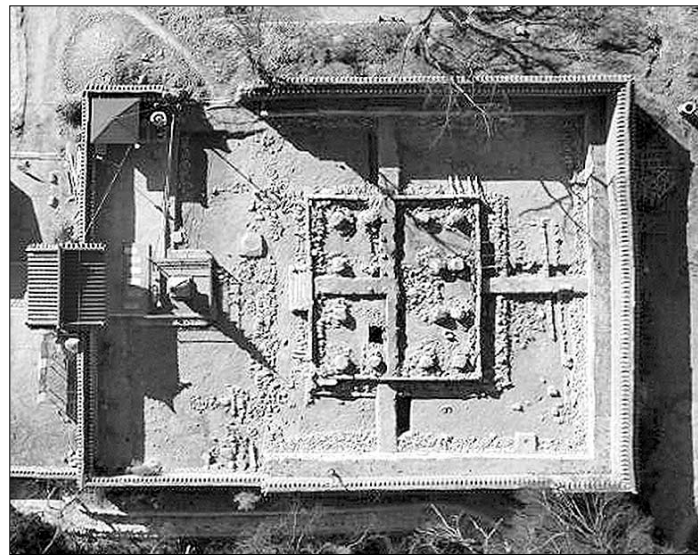
태고종 봉원사 ‘주택개발’ 설에 일침

서울 신촌 봉원사(주지 환우)가 12월 21일 토지매매 및 개발불가를 공고했다.

공고내용은 ‘서울시 서대문구 봉원동 산 1번지 봉원사 토지일대는 문화관광부와 태고종 봉원사의 협의 및 승인 없이 매매가 불가하다’는 것이 골자다. 또 ‘조계종과 태고종의 봉원사 관련 소송이 서울고법에 계류중이므로 봉원사 토지일체는 토지매매가 절대 불가하다’는 것을 공고하고 있다.

봉원사 토지를 시세보다 높게 매입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현재 토지대장에 소유자가 조계종으로 되어 있고 점유는 태고종이 하고 있는 만큼 자칫 토지를 매매할 경우 소유권 분쟁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태고종은 공고를 통해 “지난 2001년 11월 5일 조계종에서 태고종 봉원사 토지를 태고종 및 봉원사와 협의없이 조계종 명의로 임의변경, 등기한 사실을 확인해 2005년 2월 1일 본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김원우 기자



발굴조사후 드러난 원통보전 건물지. 담장 안쪽으로 보물 제499호 낙산사 7층 석탑(왼쪽)이 보인다.

낙산사 원통보전 조선초 양식 복원

국립문화재연구소 발굴조사결과 보고

지난해 4월 5일 양양 산불로 소실된 낙산사 원통보전은 3차례 중수됐으며, 가장 오래된 유구는 조선 초기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원통보전은 조선 초기 양식으로 복원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박언곤 문화재위원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보고회에서 발굴조사결과 보고 및 향후 복원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6월부터 원통보전 터를 발굴조사해온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김봉건) 유적조사연구실은 12월 21일 낙산사유적조사실에서 ‘낙산사 발굴조사결과와 자료위원회 대상 보고회’를 개최했다. 낙산사 주지 정법 스님,

국립문화재연구소 유적조사연구실에 따르면 원통보전에서는 △조선 초기 건물지 △조선 후기 내지 일제시대의 건물지 △1953년 증축돼 2005년 화재 직전까지 사용된 건물지가 확인됐다. 조선 초기 건물지는 정면 3칸 측면 3칸으로, 원형 적심의 직경이 130~150cm, 주칸 거리는

260cm로 일정했다.

통일신라-고려시대의 기와가 발견되기도 했다. 기대를 모았던 창건 당시 신라시대의 유구는 발견되지 않아 국립문화재연구소 측은 낙산사가 주로 조선시대 증축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이 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낙산사복원추진위원회(단장 김두원)는 복원 기준을 조선시대 초기 유구에 맞추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추가 발굴 여부를 포함한 구체적인 복원 방향과 일정은 추후에 열릴 낙산사복원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익순 기자

동국대에 ‘불교사회문화학’ 전공 신설

복지·콘텐츠 등 교육... 2007년 신입생 모집

동국대 불교대학에 ‘불교사회문화학’ 전공이 신설될 전망이다.

불교대학발전위(위원장 영담)는 12월 19일 워크숍을 열고 기존 3개 전공(불교학·인도철학·선학)에 불교사회문화학 전공 신설 방침을 사실상 확정했다.

적으로 제기되면서 불교사회문화학 전공 신설은 기정사실화됐다.

워크숍에서 참가자들은 전공신설에 따르는 입학정원증원의 문제는 차후 위원회와 학교당국의 조정을 통해 결정하도록 했다.

영담 스님은 “실천불교 영역의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시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불교지도자 양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불교대학발전위원회는 위원회 차원의 불교학연구기관 후원 강화, 연구교수의 대폭 증원, 연구교수의 신분보장과 인센티브 제공, 연구교수 인용시 타 대학 개방비를 확대, 출판부 적극적 활용 등 불교연구기관의 활성화 방안 마련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조용수 기자

인터넷의 불교 왜곡정보

포교사단 ‘바로잡는다’

조계종 포교사단(단장 양성홍)이 인터넷 내의 불교왜곡정보를 바로잡는 ‘불교 바로 정보 사업단(pogvossa.or.kr)’을 조계종 포교원으로 부터 이양받아 본격적인 인터넷 불교외교 및 포교 활동에 나선다.

대상 인터넷교육 실시 △사무원위원회 구성을 통한 정확하고 바른 정보 제공 △인터넷포교자집서 출판 등 다양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

8월 25일 개편된 불교바로정보사업단 홈페이지에는 출범 이후 4대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야후, 엠파스)에서 바로잡은 질문 2만495여건이 한 곳에 모여 있을 뿐 아니라 새로 올라오는 불교질문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고 있다. 또 현재 50여명의 정보위원이 정확한 불교정보 제공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사업단은 앞으로 △사찰신도들

대상 인터넷교육 실시 △사무원위원회 구성을 통한 정확하고 바른 정보 제공 △인터넷포교자집서 출판 등 다양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사회에서는 정관에 따라 현직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당연직 이사장으로 추대하기로 하고 정시추대 전까지 이사장 직무대행에 종하 스님을 호선했다. 이와 함께 신입이사에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선임하는 등 이사회 관련 안건을 처리했다. 조용수 기자

수불스님 등 신규위원 위촉

조계종 포교원 신도교육위원 위촉

조계종 포교원(원장 도영)은 12월 2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3기 신도교육위원회 위촉식을 갖고 첫 회의를 열었다.

은 신도교육 프로그램을 연구개발, 포교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도위는 또 2006년 신도총력진흥 사업을 진행하고 종단 내 신도에게에 대한 현황을 연구할 ‘전문위원 연구팀’ 구성에 대해 검토했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총 14명의 신도교육위원 중 수불 스님(안국선원장), 김용표(한국교수불자회장), 성태웅(우리는 선우 이사장), 손안식(조계종 중앙신도회 부회장) 등 4명을 신규위원으로 위촉했다.

이와함께 발간한지 5년이 넘는 <불교입문>교재 재발간과 새로운 포교지침서 교재 발간 및 종단 의례의식을 하나로 통일하는 <통일법요집> 발간에 대해 논의하고 강화선기본 수행프로그램 개발사업을 보고했다.

위원장인 포교원장 도영 스님은 “새로 위촉된 위원이 합심해 심도 높

“사립학교법 개정 지지”

4대종교 10여단체 성명

12월 9일 국회를 통과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실천불교전국총가회를 비롯한 4대 종교 10여개 단체 성직자들이 ‘사립학교법 개정 지지’를 선언했다.

내용을 아무리 보아도 종교인들이 개정을 반대할 명분을 찾을 수 없다”며 “일부 사학들이 학교 폐교나 신입생 모집 중지나 하는 극언을 쏟아내는 데 종교 사학이 앞장서고 있는 현실은 결코 종교적이지도 않으며, 교육적이지도 못하다”고 비판했다. 유철주 기자

4대 종교단체 성직자들은 12월 20일 정동 세실레스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국민들이 사립학교법 개정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만큼 종교인들도 법 개정의 정당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직자들은 이어 “개정된 법

새회장 성직스님 선출 조계종 승가모임 화엄회

조계종 승가모임 화엄회는 12월 16일 새 회장에 성직 스님(중앙총회 의원)을 선출했다. 또 부회장에 정목

· 정념· 자재, 총무에 정도, 대변인에 법진, 재무에 원경, 운영위원장에 광조, 운영위원회 간사에 덕문 스님을 각각 선출했다.

성직 스님은 1973년 사미계, 76년 구족계를 수지했으며 현재 제13대 중앙총회의원과 총무원장 총책특별보좌관을 맡고 있다. 남동우 기자

태고종 비구니회 총회 운영활성화 등 사업논의

태고종 전국비구니회(회장 여초)는 1월 9일 오후 4시 대전 유성 계룡스파텔 호텔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2005년도 사업결산 △2006년도 사업계획 수립 △비구니회 운영활성화 방안 등의 안건이 다뤄진다. 김원우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쇄인 : 채수삼
110-030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지국 (02)2004-8234-55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FAX (02)737-0698 불교포탈 부디피아 www.buddhapia.com
광고국 (02)2004-8213-6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FAX (02)737-0697 온라인서점 예시마론 www.yosiamun.com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謹賀新年 佛紀 2550年
丙戌年 새해 새날 자비광명 온누리

포교·교육·사회복지 분야에 심혈을 기울이는 도량!
대한 불교 조계종 호국참회관음기도도량 삼각산 도선사
주지 선묵 혜자 대종일동
포교분야 주간 도선법보, 월간 여성불교, 흥은동 포교당, 봉천동 포교당, 성주 대홍사, 안동 세심사, 하위이 무량사
교육분야 재단법인 청담장학문화재단, 학교법인 청담학원, 청담중고등학교, 도선불교 실달학원 교리반 경전반
사회복지분야 사회복지법인 혜명복지원, 청담종합사회복지관, 혜명불교양로원, 혜명보육원, 각구 어린이집 11곳
142-871 서울 강북구 우이동 264 TEL 02)993-3161~3 / FAX 02)993-3164 / www.dosunsa.or.kr